【 2017.9.08(금) 강원일보 】

대한시설물유지관리協 박광표 신임 도회장 선출

제3대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는 7일 원주 아모르웨딩홀에서 제3회 임시총회를 열고 도회장에 박광표(53·(자)광명건축 대표·사진) 현 수석부회장을 선출했다.

박 회장은 춘천 출신으로 강원고와 한림성심대 건축과를 졸업했다. 도회 대의원과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윤종현기자

【 2017.9.08(금) 강원도민일보 】

도내 우선순위 혼란 속 속도 내는 중부권 SOC

동서 횡단철도 정부예산 포함
도내 사업 후순위 가능성 커져

속보=강원도가 SOC사업 우선 순위 추진에 혼선 (본지 9월7일자 1면 등)을 빚고 있는 사이 중부권은 대통령 공약인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일찌감치 확정, 도의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중부권 대선 공약인 동서 횡단철도는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조사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는 충남 서산을 시작으로 천안을 거쳐 충북 청주, 경북 울진을 잇는 총연장 340㎞동서 간 철도다. 총 사업비는 3조7000억원이다.

이 사업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공약에도 반영됐다. 이 사업과 관련, 중부권 12개 시·군은 62만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한 경제성과 정책적 판단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통령 공약 사업 추진에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중부권 정치권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강원도는 문 대통령의 유일한 강원도 SOC 공약인 제천~삼척 고속화철도(ITX)사업과 제천~삼척간 동서고속도로를 놓고 우선순위에 혼선을 빚는 등 강원도 SOC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이 아쉬운 상황이다.

더욱이 중부권 지자체와 정치권이 대선 공약인 지역 대표 SOC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정부의 SOC예산 감축 기조에 도내 SOC 사업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박지은 pje@kado.net

지역민 참여보도 최삼경의 '사라져가는 것들' >>24면

기획 | 동해안 해녀가 사라진다 >>25면

시설물유지관리협 강원도회 박광표 도회장 선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강원도회는 7일 원주 아모르컨벤션 웨딩홀에서 제3회 임시총회를 열고 박광표 제3대 도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했다.

【 2017.9.08(금) 건설경제 】

건협 강원도회, 임원연석회의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지원 '잰걸음'

정동기 윤리위원장 선출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 오인철)는 지난 5일 임원연석회의를 열어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사업 규모 및 추진 일정 등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사랑나눔 회원 친선골프대회 개최, 회원사 최고경영자의 견문을 넓히고 경영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찬회를 겸한 최고경영자 연수 사업,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단체 입장권 구매 및 국가대표 경기 관람과 응원을 목적으로 하는 서포터스 모집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도회는 최근 개최된 윤리위원회의에서 운영계획과 위원장 선출 안건을 논의하고 만장일치로 동진건설㈜의 정동기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정동기 위원장은 "건설업계의 건전한 윤리의식 확립과 회원 화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해석기자

【 2017.9.08(금) 건설경제 】

강원도, 신규 SOC사업 고갈 위기

제천~삼척 ITX 건설 등 내년 예산서 대거 제외 업계 "정치권이 나서야"

강원도가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신규 사업 확보가 시급하지만 정부의 SOC 예산 축소 방침에 따라 사업 예산 확보에 먹구름이 끼고 있어서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강원도가 추진하는 신규 SOC 사업이 대거 제외됐다.

도는 당초 제2경춘국도와 춘천~철원 고속도로, 제천~삼척 고속도로 등의 신규 SOC 사업 예산을 정부에 요청했었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에는 이들 사업 관련 내용이 빠져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제천~삼척 ITX 사업도 예산 반영에 실패했다.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SOC 사업 가운데 반영된 예산은 춘천~속초 고속철도의 조사설계 예산 85억원과 여주~원주 철도 조사설계 관련 예산 3억원 정도다.

정부가 도의 신규 SOC 예산 반영 요청을 대부분 거절한 것은 내년 전체 예산에서 SOC 관련 비중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20% 줄인 17조7000억원으로 편성한 상태다.

도 건설업계는 도에서 추진하는 신규 SOC 사업 예산의 대부분을 정부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도 건설업계는 동계올림픽과 연계돼 추진되던 주요 SOC 사업들이 동계올림픽 개최가 임박하면서 완공 단계에 진입하고 있어 신규 물량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실제 동홍천~양양 고속도로가 올해 개통됐고 원주~강릉 철도는 올해 12월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앞으로 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는 빠졌던 사업의 예산이 추가로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신규 SOC 사업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단 도는 제2경춘국도 관련 예산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대한 설득 작업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2경춘국도는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상습적인 혼잡을 해소하고 춘천 레고랜드 등 춘천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계올림픽과 연계해 추진되던 대형 SOC 사업이 완료되면서 신규 사업 발굴이 시급하다"면서 "신규 SOC 예산 확보에 도와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